

길림조중 교우, 모교에 '운운장학금' 후원



장학금 후원자들에게 감사기 증정

4월 10일 오후, 길림시조선중학교 '운운장학금' 후원팀 일행 8명이 모교인 길림조중을 방문한 가운데 길림조중 고층영 교장을 비롯한 학교 지도부와 일부 교사 대표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좌담회가 열렸다.

고층영 교장이 길림조중의 운영 상황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 방문은 길림조중 교우 일행은 변함없이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층영 교장과 심수옥총장국제 집행리사 신현국, 광주지흥형신재료유한회사 회장 리광운이 사랑의 장학금 후원 협의를 체결하고 학교측에서 '운운장학금' 후원 기업에 감사기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학금 후원 조인식후 방문은 교우 일행과 길림조중 축구팀이 축구 친선경기를 치렀다. 랑팀 선수들은 땀동이를 흘리며 축구가 주는 격정을 즐기고 교정에서의 추억을 되살리며 축구로 정을 이어갔다.

고층영 교장은 모교를 생각하고 후배들을 응원하는 교우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길림조중 교우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하고 나서 교우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모교는 훌륭한 민족인재를 양성하는 데 변함없이 정성을 기울이며 민족사회와 나라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설옥, 차영국기자 / 사진 로경림

대항지촌, 과학영농으로 몸은 가볍고 마음은 즐거워



경작 준비에 바쁜 길림시 창흥구 고점자진 대항지촌의 농호들, 경작에 과학기술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손이 열이라도 부족한 농번기이지만 더 이상 몸으로만 하는 약력에 의거하지 않는다.

4월의 동북지역은 한창 벼모종이 자라는 시기이다. 대항지촌 농장주 조광문은 방안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리모컨을 조작, 편안하게 온실의 벼모종에 물을 댔다.

조광문의 고향은 일찍 미국 작가 마이클 마이어의 《동북기행》에 소개된 적이 있다. 이 책에는 대항지촌의 변천이 기록되어있는데 61세의 조광문이 바로 그 변천의 직접적인 경험자이다.

10헥타르에서 110헥타르까지, 한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조광문도 농민에서 농장주로 되었다. 요 며칠 그는 근로자들과 함께 전자동 파종기의 음성 방송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 이는 올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농장에서 새로 구입한 대형 농기구이다.

비닐하우스의 1,000여톤의 육묘 기질토에서 머지 않아 푸르고 싱싱한 벼모가 자라날 것이다. 이들 토양은 벼모가 자라는 데 필요한 비료와 미량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인공으로 원료를 배합할 필요가 없다.

"모두 농업과학원의 재료배합법인데 쌀알이 길게 자라 밥맛이 구수하고 좋습니다."

한때 황무지라고 해서 붙여진 대항지촌은 현재 우리 나라 최대 알곡 생산성인 길림성의 친환경 유기농 쌀생산기지로 되었다.

마이클 마이어는 "동북지역에서는 중국의 과거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황무지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라고 썼다.

대항지촌에서는 농망기에 농민들이 밭에 얼굴을 묻고 하늘을 등질 필

요가 없어진 지 오래다.

조광문 역시 밭머리에서 장시간 일할 필요가 없다.

새로 구입한 리모컨 분사기는 원격으로 관개를 실시할 수 있다. 묘목 관리 기간 쪼는 집에 앉아 벼의 성장을 독촉할 수 있다.

"리모컨 하나로 자동관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곳 농민들은 매년 첨단기술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대항지촌의 800헥타르가 넘는 비옥한 농지는 10여명의 대농가와 가족농장에서 경작하고 있다. 촌당지부 서기 왕정은 과학기술 활용은 농민들의 두손을 해방시켰다고 말했다. 대농들은 무인기, 관개기 등 설비의 작업 효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경험과 새로운 설비를 결합시킬 수도 있다. 육묘 기간 동안 대농가들은 일조, 온도, 수질의 산알카리도에 따라 육묘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동북 흑토의 지혜농업기술은 봄갈이 준비로부터 전반 농업생산과정에 관통되고 있다. 센서와 모니터링 기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농업용 사물인터넷과 원격 관리 등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왕홍위 (50)는 대항지촌의 새 농장주이다. 2024년 봄갈이와 더불어 홍위가족농장이 처음 맞이하는 농번기에 들어섰다. 37헥타르의 양도 토지를 왕홍위는 일사천리로 처리하였다. 호미를 리모컨으로 바꾸니 농번기가 사라졌다고 왕홍위는 웃으며 말한다.

대항지촌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다. 창문밖은 벼랑기가 그윽하다. 민요가 황무지 마을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이전의 황무지에는 곡식이 가득했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보유로 경작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다.

/ 중국신문넷

1분기 길림시 중점 프로젝트 230개 재개

올해 길림시는 407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 그중에서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60개로 산업 프로젝트 투자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1분기, 길림시에서 이미 재개한 중점 프로젝트는 230개로 재개률이 56.5%에 달했다.

길림시는 겨울철에도 시공을 하는 58개 프로젝트의 용지, 자재 등 문제를 다방면으로 조정하여 해결하였다.

동계 휴식기를 리용하여 각 지역, 각 부서를 조직하여 신규 프로젝트 전 단계 수속을 진행하고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관철을 하고 있다.

올해 길림시는 길림석유화학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년내 21세트의 설비와 194개의 소규모 부대 공정을 중점적으로 보장한 동시에 길림화학복합 C8, C9 종합리용, 메이세드 폴리우레탄보조제 계열 제품 종합리용 등 화학산업사슬 연결 및 보완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했다.

신질생산력의 육성에 주력하여 길림화학성유 40만톤 탄소섬유 산업사슬 전환, 폴침복의 년간 1,500톤 폴리 에테르케톤 생산, 강성기계광전산업 단지 등 전략적 신중공업 프로젝트의



실시를 다그쳤다.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신식품구산업단지 과수 재배가공 등 21개 농산물 정밀가공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쌀, 육우, 흰계사니, 장백산 특산 산업군을 육성했다.

올해는 길림시가 도시 갱신 3년행

동을 실시한 두번째 해로 홍기대교, 낡은 구역 개조, 도로 보수 등 도시건설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공사를 재개한다.

길림공업직업기술학원 신캠퍼스 2기, 길림시중심병원 성역 고품질 의료자원 확장, 교하시인민병원 외래 종합건물 및 인프라 개조 등 일련의

공공서비스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길림시는 길림성 고품질 발전전략과 길림시의 한계 중심, 4개 기지 건설을 목표로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유력하고 질서있게 추진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 강성일보

반석시 공업강현 브랜드 건설에 박차

반석시는 공업강현 리념하에 금속 제련, 의약건강, 신소재 등 3대 산업을 주도산업으로 육성하며 의약건강, 금속건설자재, 화학신소재 및 길림반석경제개발구 현대산업기지 분포를 완성시키는 기초하에 반석시를 홍색문화명성,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반석시는 중국 최대 니켈염생산기지, 중국 제2대 니켈금속생산기지, 중국 2대 석목산지이며 중국 10대 비금속광업개발기지, 동북 최대 강철파이프생산기지, 동북 최대 세멘트 가공원료 생산기지이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반석시의 공업총생산액은 연속 3년 전성 현급 도시 1위에 올랐으며 2023년 공업생산총액은 218.8억 원으로 5.9% 증가를 보였다.

반석시는 투자유치 녹색통로 제

도를 건립하고 의약건강산업 고품질 발전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우대정책을 내외 북경건륭중공업, 북경금속그룹, 경화일강그룹, 길림수정의약기업, 길림서정약업 등 지명 기업들이 반석에 투자했다.

반석시는 근년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기술 개조와 효율 제고에 초점을 두어 현저한 개선 효과를 안아왔다.

고품질 발전에 모를 박고 산업연구개발, 창신형 인재 양성, 신공예, 신기술, 지식재산권에 초점을 둔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39개 국가급, 성급, 시급 중심기업들을 육성했으며 녹색 리념하에 반석주성, 길림경화 등 7개 기업들이 3년간 연속 성급 녹색공장 칭호를 수여받았다.

/ 반석발표



길림석유화학 전환 프로젝트 1호 상감압탑 설치중



길림석유화학 380만톤 1호 상감압탑을 지난해 3월에 착공해 올해 8월에 인도할 예정이다. 1호 상감압탑의 설치로 길림석유화학 석유정제 설비의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와 환경보호 배출 지표는 한층 더 낮아져 국내 선진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상감압탑은 정상감압 설치의 중요한 공정설비로서 원유중 비등점이 350℃ 이하의 석유성분을 정제하여 휘발유, 등유, 경디젤유, 중디젤유와 찌꺼기 등으로 만드는 데 쓰인다. 탑의 높이는 59미터, 직경은 5.2

미터, 설비 무게는 199.1톤이며 탑 본체는 4단으로 설비 건설현장에 운반되어 내부 부재 설치, 비파괴 검사, 열처리, 압력 시험 및 보온, 부탑 파이프라인, 사다리, 플레이트흄 설치 등의 시공을 하였다.

시공 계획에 따라 첫 3단 상감압타워는 3월 6일전에 모두 들어올려 제자리를 잡았고 3월 23일에 제4단 상감압타워 크레인 조립을 끝냈다. 현재까지 상감압 설치는 공정률의 28.8%를 달성했다.

/ 강성일보

영길현 쌍하진 친환경 순환 농업의 길 모색

"농작물은 거름에 의존한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거름을 보배로 여겨라." 최근, 영길현 쌍하진 소가자촌의 경작지 사이에는 유기비료가 질서있게 쌓여있고 농민들이 한창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고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비료를 밭에 내고 있다.

쌍하진에는 도합 700호의 가금, 가축 사육 농가가 있는데 매년 약 3만립방메터의 오물이 발생한다. 가금과 가축 사육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분리 건조하고 발효하는 기술을 통해 녹색유기비료를 생산하여 13개 마을에서 사용하는데 매년 7,000여투에 달하는 경작지에 이 녹색유기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쌍하진 농업부문 관계자는 "가축농장에서 녹색발효비료를 생산해 농업생산에 유기비료를 제공함으로써 오

물 처리 난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유기비료를 통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업, 순환농업의 발전을 추진한다."고 했다.

"발효분뇨를 밭에 돌려주기 시작한 이래 이전에 장기간 화학비료를 사용해 토양이 굳어지고 유기균이 줄어들며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던 문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소가촌 촌민 송준룡은 밭에 유기비료를 사용한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향후 쌍하진은 녹색 발전을 리념으로, 농업 오염 처리 실현, 산업 규모 확대의 제고, 산업 육성 원가 인하를 선도로 가축과 가금 사육 농가의 효과적인 오물 처리와 재배 농가의 수익 증가를 추진하여 순환농업을 형성해나갈 방침이다.

/ 강성일보

반석시 석취진 로야령촌 비닐하우스 부추 풍작

4월 8일, 반석시 석취진 로야령촌의 부추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니 풍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신선하고 연하며 푸른 부추는 뿌리가 단단하고 잎이 무성했다.

부추 비닐하우스에서 마을 간부, 자원봉사자들이 한창 수확, 분류, 포장, 운반에 분주하다. 신선한 것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으려는 것이다.

촌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범해도는 "현재 비닐하우스 부추는 이미 풍작기에 접어들어 1무에 1년 2

모작을 하여 6,000근의 부추를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세로 볼 때 올해 부추 수입은 1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부터 석취진은 1,000무 계절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전개해 각 촌이 이전한 토지와 3자로 거둔 토지에 부추, 참외, 팽이버섯 등 특색 작물을 재배하도록 인도해 촌집체를 위해 년평균 10만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 강성일보